

# 제네시스 마그마, 세계 최고 레이스 데뷔 합격점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 완주 정예 드라이버 등 단일 제조사 팀 구성 차량 완성도 등 향상 경험·데이터 축적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 이하 FIA)이 주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내구 레이스 'FIA 월드 인듀어런스 챔피언십(World Endurance Championship, WE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사진)

제네시스는 소속 레이싱팀인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Genesis Magma Racing)'이 현지시간 17일부터 19일까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Emilia-Romagna) 이몰라에서 열린 2026 WEC 개막전 '이몰라 6시간(6 Hours of Imola)' 최상위 등급인 하이퍼카 클래스에 출전해 GMR-01 하이퍼카 #17 차량과 #19 차량 모두 레이스를

완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 하이퍼카 클래스에는 페라리, BMW, 도요타, 애스턴 마틴, 캐딜락을 비롯해 총 8개 제조사에서 17대의 차량이 출전했으며, 그 중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17 차량과 #19 차량은 각각 211랩과 189랩으로 15위와 17위를 기록했다. 우승은 6시간 동안 총 233랩을 완주한 도요타 레

이스가 차지했다. 이몰라 6시간은 6시간 동안 세 명의 드라이버가 교대하며 동일한 차량으로 4,909km 길이의 이몰라 서킷을 쉬지 않고 반복 주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종료 시점에서 서킷을 가장 많이 돈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WEC 데뷔전이

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이몰라 6시간'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및 차량 완주에 목표를 두고 레이스를 진행했다.

높은 트랙 난이도 및 레이스 경험을 축적한 기존 레이싱팀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GMR-01 하이퍼카 2대가 결승점에 도달함으로써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앞서 제네시스는 2024년 12월 WEC 출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자체 차량 개발, 정예 드라이버 및 운영진 구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일 제조사 팀을 꾸려 WEC 출전을 준비해왔다.

특히 2인5진km에 달하는 트랙 테스트를 통해 차량의 내구성과 주행 안정성, 레이스 운영 능력 확보에 주력했으며, 다수의 곡선과 요철 구간으로 이뤄진 이몰라 서킷 특성에 맞춰 엔진 성능 등 차량 상태를 최적화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이번 WEC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차량 완성도 및 레이스 운영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인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했다고 자평했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총감독 시릴 아비테불(Cyril Abiteboul)은 "신규 참가 팀으로서 이번 대회의 핵심 목표는 성능이 아닌 신뢰성과 실행력이었으며, 프로로그부터 레이스까지 계획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초가 매우 탄탄하다는 점과 팀의 잠재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17 차량의 안드레 로테러(Andre Lotterer) 선수는 "날씨 변수로 타이어 전략에 미세한 판단 미스가 있었으나, 피포 데라니(Pipo Derani) 선수가 끝까지 잘 버텼다"며 "이번 레이스를 통해 다진 탄탄한 기초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은 다음 달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시즌 두번째 레이스 '스파-프랑코샴프 6시간(6 Hours of Spa-Francorchamps)'에 출전할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가 20일 2026년 안전결의대회를 실시한 가운데 문재웅 공장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박동철 광주지회장(왼쪽에서 여섯번째)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안전결의문에 서명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제공)

## 기아 오토랜드광주 '노사합동 안전 결의대회' 성료

TBM 활동·위험성 평가 생활화 중대재해 예방수칙 준수 등 다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안전의식 확립에서 시작합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20일 2026년 임직원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노사합동 안전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문재웅 기아 오토랜드광주 공장장과 박동철 지회장을 비롯해 기아 임직원과 사내의 협력업체 임직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 안전결의문 낭독, 무재해를 바라는 멀티미디어 퍼포먼스, 카드섹션 등 순서로 진행했다.

결의문 낭독 및 제창 시간에는 사회자의 진행

으로 참석자 전원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제창하며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작업전 TBM 활동 및 위험성 평가 생활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아 10대 안전수칙 준수 ▲협력업체와 상생협력을 통해 이해관계자 안전보건 확보 최선 ▲자율안전 관리체계 확립해 안전사고 예방 등 실천항목들이 담겼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번 노사합동 안전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단위공장, 부서, 그룹별 안전결의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현장에서부터 안전한 오토랜드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 금호타이어, 슈퍼레이스 개막전 더블라운드 포디엄 석권

SL모터스포츠 이창욱 1·2R 예선·결승 1위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금호 SL모터스포츠 팀, 준피티드 레이싱팀이 지난 18-19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6 오토톨(O-NE)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더블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개막 더블라운드를 완벽히 제압했다.

금호타이어가 출전하는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는 오토톨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레이싱 전용 스톡카 경주 대회로 손꼽힌다. 고속 주행과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은 매 시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며 모터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18일 열린 1라운드에서는 금호 SL모터스포츠 팀 이창욱 선수와 이정우 선수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팀 원투 피니시를 기록했다.

특히 이창욱 선수는 예선과 결승을 모두 석권하는 '폴 투 윈'을 달성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창욱 선수는 지난 시즌 9개 레이스 중 5승을 거두며 독보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생애 첫 '6000 클래스' 드라이버 챔피언에 오르며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이어 19일 진행된 2라운드에서도 이창욱 선수는 다시 한 번 예선 1위와 결승 우승을 동시에 기록하며 2경기 연속 '폴 투 윈'을 달성하며 디펜딩 챔피언으로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입증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이창욱 선수(사진 가운데), 이정우 선수(사진 왼쪽)와 준피티드 레이싱팀 황진우 선수가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2라운드 포디엄을 석권하며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했다.

이창욱 선수는 1·2라운드 모두 가장 빠른 랩 타임을 기록, '패스타스트 랩(Fastest Lap)'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금호타이어의 기술력과 팀의 저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또한 이정우 선수가 2위를 차지하며 금호 SL모터스포츠팀은 2경기 연속 원투 피니시를 완성했다. 여기에 준피티드 레이싱팀의 황진우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금호타이어 후원팀이 1-3위를 모두 석권하는 성과를 거뒀다.

금호 SL모터스포츠팀과 준피티드 레이싱팀

차량에는 고속 주행 환경에서도 탁월한 점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발휘하는 금호타이어 레이싱 타이어 '엑스타(ECSTA) S700'이 장착됐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금호타이어 레이싱 타이어는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금호 SL모터스포츠팀 이창욱 선수는 "팀과 타이어의 완벽한 준비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매 라운드 최상의 퍼포먼스를 유지하며 시즌을 이어가겠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임채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